

격 려 사

자비와 화쟁의 대작불사가 원만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단은 올해 신년회건을 통해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서원을 공표하였습니다. 지난 제33대 총무원이 추진해온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한층 더 발전시켜, 이제 명실상부하게 불교가 역사와 사회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와 화쟁은 동떨어진 말처럼 보이지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입니다. 중생은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갈등과 다툼부터 말려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화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화쟁의 길에 나서는 것은 가장 큰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는 한마디로 자비와 화쟁의 크나큰 발걸음입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원용무애의 정신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정성스러운 대장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끝없이 이어져야 한반도가 마침내 공존과 화해의 기운이 넘쳐나는 화쟁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순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장거였던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3.1 운동은 모든 종교인들이 차이를 넘어 뜻을 모았고 온 겨레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이 중심이 됐지만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순례의 길에 나서는 것은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뜻 깊은 일이 되어줄 것입니다.

열흘 뒤면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국토의 남단 제주도 한라산의 천고제를 시작으로 판문점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섭니다. 순례의 길을 앞에서 이끄는 자성과 쇄신결사 본부장 도법스님을 비롯한 순례 일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순례의 길을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과 많은 국민들이 이 순례의 길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종단은 순례의 정신을 깊이 새겨 자비와 화쟁의 불사를 힘 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100일 간의 순례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탈하고 건강하게 화쟁의 대작불사를 이루시고 원만회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불기2558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